

“떠나지 않아도 되는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겠습니다”



무주읍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무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저는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 무주의 주거·생활 환경 문제를 현장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삶을 바꾸는 변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무주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생활 기반 약화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김주성은 “사람을 끌어오는 정책보다 먼저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 ✓ 살기 좋은 주거 환경
- ✓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
- ✓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 ✓ 청년과 주민이 정착하는 무주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정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무주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김주성**입니다.

김주성이 걸어온 길

- | | | |
|----------|----------------------|----------------------|
| 무주중학교 졸업 | 전) 제22대 국회 무주읍협의회 회장 | 전) 무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 중부대학교 졸업 | 전) 무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전) 새마을지도자 무주군협의회 회장 |
| | 전) 무주읍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 전) 무주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

책자형 선거공보

무소속 무주군의회의원선거
무주군 가선거구(무주·적상·부남)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무주의 새로운 변화
김주성이 함께 합니다.

기호 6번
후보

김주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무주군의회의원선거(무주군 가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6	무소속	김주성	남	1968.05.08. (58세)	무직	중부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전)무주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무주군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50,750	60,958	5,133	해당없음	장녀: △15,341 장남: 없음	5급 전시 근로역 (질병명: 폐양수술/귀가)		장남: 현역병 입영대상 (재학생 입영연기)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030	0	0	사기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08.09.03)
후보자	145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879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6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해당 전과 기록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과오였고, 그 모든 과정은 사익이 아닌 체육단체 육성과 사무국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

무주를 위한 5대 실천 공약

I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I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 상·하수도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 / 소규모 주거 재생사업 추진
빈집 활용 정책 확대 / 주민 참여형 마을 정비 지원

“살기 좋아야 사람이 남습니다.”

I 무주형 도시재생 모델 만들겠습니다 I

소규모 표준주택 모델 도입 / 고령층·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골목·생활권 중심 정비 확대 / 공공공간 및 마을쉼터 조성 / 주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 기존 자원을 살리는 관광정책 추진하겠습니다 I

금강변 마실길·버룻길 활용 확대 / 걷기·체류형 관광 활성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정책 추진 /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 확대 / 무주여행길 활성화 지원

“자연을 지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I 걷기 좋은 무주 만들겠습니다 I

저는 지난 5년간 '독수리 오형제'와 '무주여행길' 활동을 통해 무주의 길을 직접 걸으며 환경 정화와
길 관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길이 살아야 마을이 살아납니다.”

I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I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책임 있게 감시하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은 군민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김주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무주의 길을 직접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현장의 경험을 이제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